

인류세와 기독교 신학

참고문헌

Ernst M. Conradie and Hilda P. Koster, eds., T&T Clark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y and Climate Change (London: T&T Clark / Bloomsbury, 2020). 발제 본문의 대괄호는 이 책의 해당 저자와 페이지이다.

공식 지질학적 지위 확인: IUGS-ICS, “The Anthropocene” 성명. 책은 출간 당시에도 공식 지질시대가 홀로세임을 밝히며 인류세를 넓은 학제적 개념으로 사용한 다. [Edwards, p. 547, n. 8]

핵심 내용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를 바꾸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진단이다. 인류세 신학은 그 힘의 불균등한 분포와 피해를 직시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피조물 앞에서 인간의 위치와 책임, 죄와 구원, 교회의 실천과 희망을 다시 묻는다. 인류세의 신학은 인간의 힘을 찬양하거나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 그 힘이 만든 상처와 불의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피조물이 함께 번영할 관계와 제도를 책임 있게 만들어 가는 신학이다.

발제의 목표

1) 인류세를 기후변화와 구분하면서 그 과학적, 사회적, 도덕적 의미를 설명한다. 2) 인류세가 기독교의 창조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하나님 이해와 종말론에 제기하는 질문을 파악한다. 3) 기후정의와 교회 실천으로 이어지는 신학적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책을 읽는 관점

이 책은 단일한 체계를 제시하는 교의학이 아니다. 과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활동가와 협력하고, 여러 교파와 지역의 목소리가 서로 논평하는 대화형 핸드북이다. 편집자들은 북대서양 기독교가 기후위기의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동시에 문제의 일부였는지를 묻는다. 아래 내용은 저자들의 공통점과 긴장을 함께 정리한다. [Conradie & Koster, pp. 1-9]

발제 순서

쪽	주제	핵심 물음
2-3	인류세의 의미와 명명	누가 지구를 변화시켰고 누가 책임지는가?
4-5	과학, 신학, 도덕	어떤 지식과 책임이 필요한가?
6-11	주요 교리의 재구성	창조, 인간, 죄, 구원, 하나님, 미래를 어떻게 말할까?
12-13	기후정의와 교회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실천할까?
14	종합, 토론	위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과 행동으로 연결할까?

인류세란 무엇인가?

지질학적 명칭을 넘어 지구적 인간 영향의 진단으로

1. 기본 정의

인류세(Anthropocene)는 인간 활동이 지구의 기후, 생태계, 물질 순환과 생명 형태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가리킨다. Edwards는 지질학적으로 공식 시대는 홀로세이지만, 많은 연구자가 인간의 지구 체계적 영향을 표시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Edwards, p. 547, n. 8]

현재 지위 2024년 국제지질과학연맹과 국제층서위원회는 인류세를 공식 지질시대의 세(epoch)로 채택하는 제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지구적 영향을 가리키는 학제적 개념으로서의 사용은 계속된다. 이 자료에서도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책의 입장: Edwards, p. 547, n. 8; 현재 지위: IUGS-ICS 공식 성명]

2. 기후변화와 인류세의 관계

개념	초점	신학적 질문
기후변화	온실가스 축적이 초래하는 장기적 기후 변화와 그 영향	원인과 피해, 완화와 적응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인류세	기후뿐 아니라 토지, 해양, 생물다양성, 자원과 기술을 포괄하는 인간의 행성적 영향	지구를 바꾸는 종으로서 인간은 누구이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기후정의	원인에 대한 기여, 피해, 적응 능력이 불균등한 현실	누가 혜택을 누렸고 누가 비용을 떠안는가?

3. 인류세의 세 가지 시간 규모

현재: 일상적 에너지 사용과 생산, 이동, 소비가 이미 기후 체계에 연결되어 있다.

역사: 산업화, 식민주의와 고탄소 경제가 누적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미래: 오늘의 행위는 다음 세대와 먼 미래의 생명 조건에 영향을 준다.

Rasmussen은 인간 행위의 도덕적 범위가 공간적으로는 행성 전체, 시간적으로는 세대를 넘어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Rasmussen, pp. 153-156; Jenkins, pp. 73-76]

4. 지구적 힘과 도덕적 회원권

기존 윤리는 인간 사회 안의 관계만 도덕의 중심에 두기 쉬웠다. Rasmussen은 공기, 물, 토양, 심해, 극지방과 다른 생명체가 도덕적 외부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영향이 행성적이라면 도덕적 관심과 책임의 경계도 생태권 전체와 미래로 확대되어야 한다. [Rasmussen, pp. 154-156]

누가 만든 인류세인가?

Anthropocene, Capitalocene, 그리고 책임의 차이

1. “인류”라는 이름의 장점과 위험

인류세라는 말은 인간의 집합적 힘을 가시화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같은 방식과 정도로 지구를 바꾼 것은 아니다. 역사적 배출, 고탄소 생활의 혜택, 정치적 결정권, 피해와 적응 능력은 계급, 인종, 성별, 지역과 세대에 따라 다르다. “인류가 원인이다”라는 문장은 책임의 규모를 드러내면서도 책임의 차이를 가릴 수 있다. [Jenkins, pp. 74-76; Kwok, pp. 651-654]

2. 자본세(Capitalocene)라는 비판

Bergmann은 화석연료, 금융, 기술과 성장 중심의 세계 체제가 생명을 선물보다 상품과 자원으로 바꾸는 방식을 비판한다. 이런 관점에서 위기의 원인을 인간 중 일반보다 자본 축적과 불평등한 교환의 체제에 더 정확히 돌리기 위해 자본세라는 이름이 제안된다. 그에게 성령 신학은 돈과 기계의 물신화를 비판하고 인류세를 생태세(Ecocene)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공한다. [Bergmann, pp. 500-508]

3. “좋은 인류세”의 낙관을 점검하기

Sideris는 인간의 적응력, 창의성, 환경 개조 능력을 강조하는 진화론적 “틈새 구성” 서사가 기술로 더 나은 인류세를 만들 수 있다는 낙관으로 흐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서사는 인간의 파괴까지 진화적 성공으로 포장하고 인간 예외주의를 되살릴 위험이 있다. 기술적 창의성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와 어떤 삶이 희생되는지를 답하지 못한다. [Sideris, pp. 35-46]

명명	드러내는 것	가릴 수 있는 것
인류세	인간 활동의 행성적 규모와 장기 영향	내부의 책임 차이와 권력 구조
자본세	성장, 축적, 식민주의와 불평등한 교환	다른 문화적, 종교적, 기술적 원인
생태세	생명과 관계가 중심이 되는 규범적 미래	전환을 실현할 제도와 갈등의 구체성

각 명명은 어떤 원인, 행위자, 책임과 미래를 보이게 하는지 비교한다.

인류세는 진단, 자본세는 권력 분석, 생태세는 규범적 지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과학과 신학은 어떻게 협력하는가?

설명, 해석, 규범과 실천을 연결하기

1. 과학을 존중하는 신학

기후과학은 지구 체계의 변화, 인간 원인, 예상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경험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Eaton은 신학자가 과학적 결과를 임의로 선택하거나 신앙의 언어로 대체해서는 안 되며, 기후과학자와 실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학자 역시 가치, 의미, 동기와 공적 소통의 문제에서 종교 공동체와 대화할 수 있다. [Eaton, pp. 15-26; Hayhoe & Hayhoe, pp. 27-30]

2. 서로 다른 질문, 겹치는 책임

차원	주요 질문	기여
경험적 설명	무엇이 일어나며, 왜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관측, 모델, 인과 추론, 위험과 불확실성의 평가
해석적 이해	이 변화가 인간과 창조세계의 관계에 무엇을 뜻하는가?	세계관, 역사, 상징과 경험의 비판적 해석
규범적 판단	무엇이 선하고 정의로우며 누구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가치, 권리, 책임, 덕과 공동선의 논증
실천적 지혜	어떤 정책과 생활, 공동체의 변화가 가능한가?	완화, 적응, 돌봄, 제도 변화와 협력

3. 기후변화는 “사악한 문제”이다

Jenkins가 말하는 wicked problem은 해결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복잡한 현실을 어떤 문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해법과 비용의 분배가 달라지고, 더 나은 응답의 기준 자체가 논쟁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지식, 복잡성을 견디는 공론장,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와 제도적 책임성이 필요하다. [Jenkins, pp. 72-73]

4. 신학의 자기비판이 협력의 조건이다

편집자들은 과학, 경제, 정치, 공학, 예술, 시민사회와 타종교의 협력을 책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동시에 기후부정, 인간중심주의, 식민주의, 가부장제, 성장주의와 결합한 기독교의 역사 때문에 다른 이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신학의 공적 기여는 도덕적 우위를 선포하는 데서보다 자신의 공모를 고백하고 타자의 지식을 들을 때 시작된다. [Conradie, pp. 13-14; Conradie & Koster, pp. 5-9]

과학은 신학을 대신하지 않고 신학도 과학을 대신하지 않는다. 두 영역은 지구의 현실에 함께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도덕적 인류세와 행성적 책임

영향의 범위만큼 책임의 범위를 넓히기

1. 행위의 규모가 달라졌다

Rasmussen에게 인류세의 중심 문제는 인간 행위의 결과가 개인의 의도와 가까운 이웃을 넘어 생태계, 세대와 깊은 시간에 누적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흔적이 행성적이라면 책임도 행성적이어야 한다. 도덕적 세계의 경계를 인간 사회에만 두는 홀로세적 습관으로는 인류세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 [Rasmussen, pp. 153-156]

2. 일상의 공모와 구조적 악

화석연료 기반의 주거, 교통, 식량과 전력 체계에서는 아침을 만들고 교실의 불을 켜는 평범한 행동도 수많은 행동과 합쳐져 위험에 기여한다. Jenkins는 선한 의도만으로 구조적 공모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죄책감을 개인에게 몰아주는 대신, 일상을 조직하는 기반시설과 정책, 경제의 전환을 함께 물어야 한다. [Jenkins, pp. 73-74]

3. 동일한 연루, 비동일한 책임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기 안에 연루되지만 모두가 똑같이 기여하거나 고통받지는 않는다. 역사적 배출의 혜택을 얻은 사회, 고소득층과 기업은 더 큰 책임과 능력을 지닌다. 반면 원인에 적게 기여한 저소득층, 원주민, 도서국가와 미래세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책임은 기여도, 혜택, 피해, 대응 능력과 의사결정 권한을 함께 고려해 배분해야 한다. [Jenkins, pp. 74-76; O'Brien, pp. 211-221]

판단 기준	묻는 질문
원인 기여	누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와 생태 부담을 발생시켰는가?
혜택	누가 고탄소 개발과 자원 추출의 이익을 누렸는가?
피해와 취약성	누가 더 먼저, 더 심하게 피해를 입으며 회복 자원이 부족한가?
능력	누가 감축, 적응, 재정 지원과 기술 전환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절차적 정의	누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하는가?

4. 권리와 책임은 공동체를 구성한다

O'Brien은 권리가 누군가의 의무를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안전한 물과 삶의 조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 그 조건을 훼손한 이들에게 예방, 복구와 지원의 책임이 생긴다. 그러나 보편적 권리를 말할 때도 지역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신하거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시점”에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O'Brien, pp. 211-221]

인간은 창조세계에서 누구인가?

예외적 지배자에서 관계적이고 책임 있는 피조물로

1. 인간중심주의의 이중 문제

기독교 인간론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의 중심으로 강조하면서 다른 피조물을 배경이나 자원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방식도 책임의 주체를 지워 버린다. 인류세는 인간을 생태적 연속성 안에 놓는 동시에, 지구를 바꾸는 특별한 힘과 책임을 지닌 존재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Scott, pp. 373-383]

2. “두 번째 타락”과 신학의 곤란

Scott의 lapsus secundus는 오늘의 인위적 온난화가 실천적 타락일 뿐 아니라 인식론적 단절임을 가리킨다. 기후위기의 새로움과 기독교 인간중심주의의 역사를 고려하면 전통의 개념을 곧바로 해결책으로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전통의 언어 없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이 긴장은 전통을 버리거나 반복하기보다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게 한다. [Scott, pp. 375-377]

3. “더 큰 사회”

Scott은 사회를 인간들만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얽혀 있는 더 큰 사회로 확장한다. 인간 사회는 물, 토양, 기후, 동물과 식물의 다양한 관계로 유지된다. 인간은 자연 바깥의 관리자라기보다 이 관계망 안에서 대표성과 책임을 수행하는 피조물이다. [Scott, pp. 377-379]

4. 창조와 계속되는 창조

Oord는 오래된 우주, 진화와 피조물의 활동을 고려해 창조를 과거의 단회적 사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창조 (creatio continua) 속에서 피조물은 세계의 형성에 참여한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통제보다 사랑, 자기 증여와 타자를 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설명한다. 이는 인간의 창조적 힘을 절대화하지 않고,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한다. [Oord, pp. 362-372]

잘못된 극단	관계적 인간론의 교정
인간은 자연의 절대 지배자이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생태 조건에 의존한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아무 차이도 없다	인간의 집합적 힘과 도덕적 응답 능력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
관리자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	돌봄은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존재의 번영 조건을 보전한다.

인간의 소명: Scott는 인류세에서 인간의 소명을 “피조물로서 사랑을 대표하고 실천하는 일”로 모색한다. 지구적 힘을 소유의 권리보다 사랑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제안이다. [Scott, pp. 381-383]

기후위기를 죄로 말한다는 것

개인적 잘못을 넘어 사회적 깊이를 진단하기

1. “죄”는 과학적 설명의 지름길이 아니다

Conradie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죄 세 글자로 대체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기술, 경제, 정치, 문화와 심리의 층위를 분석하지 않으면 신학은 다른 학문과 단절된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지, 무엇을 궁극적으로 신뢰하는지를 묻는 죄의 언어는 깊이 진단에 기여할 수 있다. [Conradie, pp. 384-385]

2. 여섯 가지 생태적 죄의 양상 [Conradie, pp. 385-387]

양상	오늘의 표현	요구되는 전환
교만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며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	겸손과 신중함
탐욕	무한한 욕망, 과소비, 성장과 축적의 절대화	절제, 검소와 충분함
태만	알면서도 미루고 맡은 책임을 방기함	신속한 공동 행동
지배	계급, 인종, 성별, 종의 차이를 위계와 착취로 만들	연대, 해방과 정의
소외	지구를 삶의 집이 아니라 외부의 자원으로 경험함	귀속감과 생태적 유대
어리석음	부정, 기만, 무지, 위선과 단기적 판단	지혜, 숙고와 예방 원칙

3. 보편적 죄와 비례적 책임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지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기후위기에서 모두가 얽혀 있다는 사실과 역사적 배출, 권력, 혜택과 피해의 차이를 함께 말해야 한다. Conradie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도로 기여하거나 고통받지 않으므로 죄의 보편성과 죄책의 비례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Conradie, pp. 387-391]

4. 구조적 죄와 이상송배

죄는 개인의 선택뿐 아니라 반복되는 제도, 문화와 욕망의 구조다. 시장, 기술, 국가, 성장이나 안전을 궁극적 구원자로 신뢰할 때 그것들은 준구원론과 우상이 될 수 있다. 회개는 개인 감정에 머물지 않고 교회의 투자, 소비, 정치적 침묵과 사회 체제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Conradie, pp. 392-394]

하나님은 기후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재난을 섭리로 정당화하지 않고 구원을 넓게 말하기

1. 섭리의 질문은 피해자의 장소에서 시작된다

Pearson은 해수면 상승으로 삶터와 문화의 상실을 위협받는 투발루와 키리바시의 현실에서 섭리를 묻는다. 하나님의 돌봄을 말하려면 홍수, 염해, 가뭄과 이주의 구체적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노아 언약을 “우리 섬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반과학적 보장으로 읽으면 부정과 무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Pearson, pp. 395-397]

2. “좋은 인류세”와 신정론의 위험

기술적 창의성으로 위기를 관리하여 더 위대한 인류세를 만들 수 있다는 서사는 현재의 희생과 문화적 소멸을 진보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기술 통제와 동일시하거나, 재난을 숨은 구원 계획으로 쉽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섭리 신학은 피조물의 고통, 인간 자유와 책임, 하나님의 신실함을 긴장 속에서 말해야 한다. [Pearson, pp. 399-405]

3. 구원의 범위를 넓히기

Conradie는 구원을 죄책의 용서나 죽은 뒤의 영혼 구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방, 치유, 화해, 회복과 인도로 설명한다. 기후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후변화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 구원은 피해받는 이들과 창조세계의 치유를 포함하며, 회개와 정의로운 참여를 놓아야 한다. [Conradie, pp. 406-416]

4.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

Koster는 성화와 공동체의 변화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인간의 행동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고 새로운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은총은 책임의 경쟁자가 아니라 욕망, 습관과 제도를 바꾸는 힘이다. 따라서 영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는 분리되지 않는다. [Koster, pp. 417-430]

피해야 할 말	더 책임 있는 신학적 표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맡겨진 책임을 수행한다.
재난은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이다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고통 곁에 선다.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기술의 유익, 한계, 권력과 분배 효과를 함께 평가한다.
구원은 인간 영혼만의 문제다	인간과 비인간 피조물의 치유와 화해를 포함한다.

섭리와 구원에 대한 말이 과학적 현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고, 고통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돌봄과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케노시스

소비와 지배를 뒤집는 자기 비움의 길

1. 군주적 하나님 이야기의 한계

McFague는 전능한 군주가 위에서 세계를 통제한다는 서사가 개인주의, 인간중심주의와 소비주의를 교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는 기후위기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사회적이고 관계적이며 세계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출발점은 예수의 삶과 자기 비움이다. [McFague, p. 513]

2. 케노시스: 구원과 제자도의 모형

빌립보서 2장의 케노시스는 권력을 불드는 대신 자신을 비우고 타자의 생명을 위해 내어 주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리킨다. McFague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면서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대신했으므로 인간은 수동적이어도 된다는 이해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여 타자를 위해 욕망과 특권을 제한하도록 부른다. [McFague, pp. 513-514, 516-518]

3. 관계적 존재론

그는 “나는 관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으로 인간과 창조세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개별자는 고립된 상태로 완성되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진화 과정의 희생을 도덕적 자기 희생과 곧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자연 과정은 의식적 결단이 아니며, 인간의 케노시스는 책임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McFague, pp. 514-516]

4. 기후위기에서 케노시스의 구체성

영역	케노시스가 요구하는 질문
소비	나의 편의와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터와 미래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경제	성장과 이윤을 위해 희생되는 사람과 피조물은 누구인가?
정치	권력과 발언권을 피해 당사자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교회	절제와 나눔을 설교하면서 예산, 건물, 투자와 행사에서는 무엇을 실천하는가?

5.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케노시스는 기후특권을 내려놓는 강력한 언어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더 희생하라고 요구하거나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기 비움은 강요된 박탈과 다르며, 힘을 가진 이가 타자의 생명과 공동선을 위해 특권을 제한하는 실천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령, 삼위일체와 하나님 언어

생명을 주는 관계와 창조세계의 공동체

1. 성령: 생명의 숨과 해방의 힘

Bergmann은 생명을 파괴하는 인류세에서 성령을 생명의 수여자이자 자연의 해방자로 고백하는 의미를 묻는다. 성령의 새 창조는 피해받고 삶터를 빼앗긴 이들의 장소에서 희망과 저항을 일으킨다. 돈과 기술이 생명의 가치를 대체하는 물신화를 비판하고, 인류세를 생태세로 바꾸는 비전을 낳는다. [Bergmann, pp. 497-508]

2. 삼위일체: 창조세계의 공동체

Edwards는 추상적 공식보다 창조,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성서적 이야기에서 삼위일체론을 시작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창조하고, 육신과 물질에 자신을 결속하며, 피조물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온 창조세계의 변형을 약속한다. [Edwards, pp. 545-548]

하나님의 일치는 차이를 지우는 단일성이 아니라 사랑의 친교로 이해된다.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상호의존성은 관계적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신학적 의미를 얻는다. 생물다양성의 상실은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풍성한 선함을 표현하는 피조물이 사라지는 신학적 문제가 된다. [Edwards, pp. 552-554]

3. “아버지 하나님”과 가부장제 비판

Rakoczy는 아버지 언어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 문자적인 이미지로 굳어질 때 남성의 지배와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하나님 이미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도 가린다. 성서의 성령, 지혜(Sophia), 모성적 이미지와 자연의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여 종교적 상상력을 넓혀야 한다. [Rakoczy, pp. 528-539; Edwards, pp. 548-550]

신학적 고백	생태적 함의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	모든 생명을 상품 이전에 선물로 보고, 생명을 파괴하는 힘에 저항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물질과 몸, 피조세계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배경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친교이시다	관계는 지배와 흡수가 아니라 차이, 상호성, 참여를 지향한다.
온 창조세계가 완성을 향한다	생물다양성과 피조물의 번영을 신학적 관심에 포함한다.

생태적 회심: 하나님, 이웃, 자연세계와의 삼중적 친교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인식과 감정, 생활 방식, 우선 순위와 공동체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Edwards, pp. 554-555]

인류세의 종말론과 희망

파국을 정당화하지 않고 책임을 지속하는 미래

1. 인간이 만드는 “부정적 종말론”

Mueller-Fahrenheit는 핵무기, 종의 대량 멸종과 경제적 파괴가 서로 강화되는 현실을 인간이 만들어 낸 부정적 종말론으로 묘사한다. 인간은 자신의 종과 다른 생명의 미래를 파괴할 힘을 갖게 되었지만 그 힘을 감당할 사고와 감정의 틀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특히 이 힘이 북반구 엘리트에게 집중될수록 책임과 무력감의 격차가 커진다. [Mueller-Fahrenheit, pp. 440-441]

2. 도피적 종말론의 세 가지 위험

위험	결과
선과 악의 절대적 이원론	갈등과 파괴를 마지막 전쟁의 필연으로 받아들인다.
초역사적 세력에 책임 전가	정치, 경제와 기술의 인간적 행위자를 가리고 책임을 약화한다.
현재 창조세계에 대한 경멸	현 세계는 불타 없어질 것이므로 종의 멸종과 생태파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이러한 종말론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정, 무관심과 무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Mueller-Fahrenheit, pp. 442-445]

3. 화해와 온 창조세계의 완성

대안적 종말론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연민과 만물의 화해를 중심에 둔다. 구원의 목표는 인간 영혼만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치유와 회복이다. 이러한 희망은 악과 불의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권력을 인간의 것으로 정확히 명명하고, 현재의 피조세계를 지키며, 정의와 화해를 위해 저항할 용기를 준다. [Mueller-Fahrenheit, pp. 446-450]

4. 희망의 네 가지 기능 [Mueller-Fahrenheit, pp. 446-448]

- 애도: 상실을 부정하지 않고 느낀다.
- 분별: 파국을 하나님의 뜻으로 신성화하지 않는다.
- 상상: 현재 질서가 유일한 가능성이 아님을 본다.
- 인내: 결과를 보장받지 못해도 생명을 지키는 행동을 지속한다.

희망과 낙관의 차이: 낙관은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을 예상한다. 기독교적 희망은 고통과 위험을 정직하게 보면서도 하나님의 화해와 새 창조를 신뢰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게 한다.

기후정의는 여러 축에서 보아야 한다

계급, 성, 인종, 종, 종교와 지역의 교차

1. “인류” 내부의 차이를 보이게 하기

책의 마지막 부분은 앞선 논의가 무엇을 놓쳤는지 다시 검토한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는 한 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계급, 성별, 인종, 식민주의, 종교, 인간과 동물의 관계, 지리와 감축 능력이 서로 교차한다. 정의로운 신학은 가장 많이 말한 사람보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쉽게 지워지는 존재의 경험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Koster, pp. 649-650; Bong, pp. 655-658]

축	책의 핵심 통찰	참조 쪽수
계급	식민주의와 세계 생산망은 부와 환경 비용을 다르게 배분한다. 부유한 나라가 오염을 외주화하는 구조도 보아야 한다.	Kwok, 651-654
성	성 중립적 언어는 여성, 성소수자, 돌봄 노동자의 차등적 피해와 발언권 부족을 가릴 수 있다.	Bong, 655-658
인종	환경 인종주의는 특정 공동체와 몸을 덜 가치 있게 취급한다. 생태여성주의는 흑인 여성의 경험과 생태 지해를 중심에 둔다.	Harris, 659-662
종교	공동 대응은 기독교의 우위를 전제하기보다 종교적 다양성과 토착 지해를 존중하는 대화여야 한다.	Kim, 663-673
동물	축산, 서식지 상실과 온난화는 기후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비인간 동물도 피해자이며 신학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Clough, 674-676
지리	생태계는 국경을 따르지 않지만 식민지 경계와 지역 격차는 적응과 협력을 어렵게 한다.	Mugambi, 677-683
감축	효율, 에너지원 전환, 소비 감소를 함께 추진하고 국제적 비용 배분의 정의를 물어야 한다.	Diefenbacher, 684-688

2. 교차성(intersectionality)

한 사람은 동시에 여러 관계에 놓인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해안 지역의 여성 이주민은 계급, 성, 인종, 지리와 시민권의 조건이 겹쳐 더 큰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 교차성은 취약한 집단을 고정된 피해자로 낙인찍기보다, 억압이 결합되는 방식과 그 공동체의 지식과 행위 능력을 함께 보게 한다. [Bong, pp. 656-658; Harris, pp. 659-662]

3. 보편성과 구체성

모든 인간의 존엄과 공동의 집을 말하는 보편적 언어는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성이 누군가의 실제 목소리를 대신하면 다시 가부장적이거나 식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권리와 책임은 현장의 당사자가 문제 정의, 계획과 평가에 참여할 때 구체적인 의미를 얻는다. [O’Brien, pp. 216-221]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배, 성서, 공동체, 돌봄과 공적 행동

1. 교회 실천의 다섯 영역

영역	핵심 과제	참조 쪽수
예배와 성례	예배가 소비주의와 고탄소 생활을 재생산하는지 점검하고, 창조세계의 감사, 탄식과 절제를 습관화한다.	Gschwandtner, 566-575
성서와 설교	기후과학을 존중하며 인간과 비인간 피해자를 해석의 중심에 놓고, 기후문해력을 갖춘 설교를 한다.	Rossing, 579-592
친교와 연대	고탄소 교회와 저탄소 피해 공동체 사이의 비대칭을 인식하고, 사람과 지구를 포함하는 친교를 형성한다.	Lothes Biviano, 597-610
목회 돌봄	생태적 슬픔, 불안, 죄책감과 재난 트라우마를 돌보며, 탄식을 책임, 회복탄력성과 공동 행동으로 연결한다.	Swain, 615-626
사회적 가르침	교육과 선언을 예산, 투자, 에너지, 정책 옹호, 종교 간 협력과 탄소 감축으로 구현한다.	McDonagh, 631-641

2. 예배는 세계관과 습관을 형성한다

예배는 교리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 시간, 감정과 공동체의 습관을 형성한다. 교회 건물, 이동, 일회용품, 행사와 투자도 예배의 생태적 의미에 포함된다. 창조절, 금식, 동물과 장소를 위한 기도는 의식을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 감축과 정의로운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 [Gschwandtner, pp. 566-575]

3. 돌봄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과제다

Swain은 목회가 개인의 내면만 돌보지 않고 인간과 지구의 상처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식은 고통의 원인을 질문하고 절망과 분노를 공동 행동으로 전환하는 통로가 된다. 목회자는 재난 이후의 치유뿐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예방, 정책과 연대에도 참여하는 공적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Swain, pp. 615-626]

4. 한국교회에 대한 책의 질문

Meehyun Chung은 한국 개신교회가 여전히 인간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구원을 설교하며, 좋은 교회 문서가 지역교회의 일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한살림의 생명 운동과 종교 간 환경 연대를 구체적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선언의 의미는 예산, 소비, 지역 협동과 공적 행동에서 검증된다. [Chung, pp. 642-646]

핵심 정리와 토론을 위한 질문

인류세 신학의 열 가지 명제

- 1) 인류세는 인간 활동의 행성적 효과를 드러낸다. 2) “인류” 내부의 책임과 피해 차이를 함께 밝혀야 한다. 3) 신학은 과학을 존중하고 다른 학문과 협력해야 한다. 4) 인간은 생태적 관계 안에 있으면서 특별한 도덕적 책임을 지닌다. 5)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면서 지금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다.
- 6) 죄는 교만과 탐욕 같은 개인적 태도뿐 아니라 구조, 이상과 책임 방기를 포함한다. 7) 구원은 인간 영혼을 넘어 피조세계의 치유, 해방과 화해를 향한다. 8) 삼위일체의 친교와 성령의 생명은 관계적 존재와 생태적 회심을 뒷받침한다. 9) 종말론적 희망은 현재 창조세계의 파괴를 정당화하지 않고 책임과 인내를 낳는다. 10) 교회의 신학은 예배, 경제, 돌봄, 감축과 공적 연대에서 검증된다. (전체 책에 대한 종합)

토론 질문

- 1) 인류세와 자본세 가운데 어느 명칭이 오늘의 위기를 더 잘 설명하는가? 두 개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
- 2) 인간을 창조세계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특별한 도덕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3)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기후정의를 약화하지 않으려면 어떤 구분이 필요한가?
- 4) 부활과 새 창조의 희망은 탄소 감축, 생물다양성 보전과 재난 돌봄에 어떤 동기를 주는가?

핵심 읽기 안내

주제	추천 장과 쪽수
인류세의 도덕적 의미	Larry Rasmussen, “A Moral Anthropocene,” pp. 153-156
인간, 죄, 섭리	Peter Manley Scott, pp. 373-383; Ernst M. Conradie, pp. 384-394; Clive Pearson, pp. 395-405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Sigurd Bergmann, pp. 497-508; Sallie McFague, pp. 513-523; Denis Edwards, pp. 545-555
가부장제와 하나님 언어	Susan Rakoczy, pp. 528-539
교회 실천과 정의	Part VI, pp. 563-646; Part VII, pp. 649-688